“솜이불로 따뜻한 겨울 나세요”

생명나눔실천본부 12월 6일
의정부 낙후지역에 겨울물품
가수 수지 2000만 원 후원
배아현 등 홍보대사도 동참

의정부=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일면 스님은 12월 6일, 의정부를 찾아 소외 이웃에 겨울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지원물품은 가수 수지의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봉사자들은 좁은 골목을 걸어 이불을 옮겼다.

해마다 낙후 지역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생명나눔신천본부(이사장 일면)가 올해도 겨울물품 지원에 나섰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 일대에서 ‘제9회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따뜻한 정나누기’를 실시했다. 일면 스님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 정현숙 생명나눔 후원회장, 홍보대사인 개그맨 엄영수, 가수 권미희, 배아현 등 봉사자 20여 명은 이날 의정부 고산동 일대 저소득 350가구에 각각 겨울 솜이불 1채와 물티슈 한 박스, 각종 먹거리가 담긴 식품 1박스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겨울 물품들은 가수 겸 배우 수지가 후원한 2000만 원으로 마련됐다. 수지는 2016년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 정나누기 행사를 후원해왔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 독거 어르신 및 독거 장애인 가구 등에 후원된 금액은 1억 1천여 만 원에 달한다.

겨울용품 나눔 전, 송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법륜)에서 전달식이 개최됐다.

일면 스님은 “오늘 정나누기 행사를 통해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의 온정의 손길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늘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아무 대가 없이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분들로 인해 소외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게 됐다”면서 “의정부시도 더욱 잘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전달식 후 봉사자들은 각 가정으로 이불 배달을 시작했다. 이날 겨울이불이 전달된 곳은 의정부 고산동 빼뻘 마을이다. 미군 주둔지이자 역사를 간직한 마을로, 한때는 의정부의 경제를 좌우할 정도인 동네였지만 점차 미군 부대가 철수하면서 가게들도 대부분도 사라지고 낙후됐다.

주택상황이 열악하다보니 스님을 포함한 봉사자들은 좁은 골목 사이사이를 걸어 다니며 솜이불을 옮겼다. 온돌이 되지 않은 작은 방에서 홀로 살고 있는 권00(80세) 할머니는 평소 인기척이 거의 없던 집에 스님과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이어지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나고 있던 권 할머니는 “두툼한 솜이불을 보니 올 겨울은 마음이 놓인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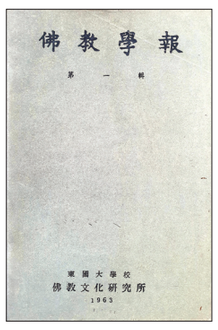
홍보대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솜이불을 전달하며 담소를 나누고 안부를 묻기도 하는 등 따뜻한 시간을 보내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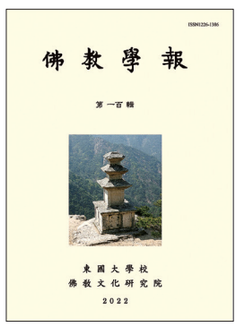
배아현 홍보대사는 “직접 와보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 시간과 여건이 되는 데로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골목 곳곳 소외이웃에게 이불 배달을 마친 일면 스님은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우려된 상황에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은 더욱 소외되고 힘들게 겨울을 보내야 한다”며 “약소하지만 우리가 드린 솜이불이 올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장수 불교학술지 〈불교학보〉 100집 발행

1963년 10월 창간 후 누락없어
교학 · 사학 · 응용 분야 개척
동서양 사상 교류 큰 성과
새해 판형변화 등 혁신 예고





1963년 10월 창간된 〈불교학보〉가 100집 발행을 맞았다. 사진은 불교학보 1집(왼쪽)과 불교학보 100집(오른쪽).

1963년 10월 창간된 현존 최장수 불교학 전문학술지인 〈불교학보〉가 100집 발행을 맞았다. 6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매년 단 한번의 누락없이 안정된 발행을 해온 결과라 더욱 뜻깊다.

종립 동국대 정체성 확립과 불교와 동서양 사상연구를 주도하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정덕)은 11월 30일 〈불교학보(佛敎學報)〉 100집을 발행했다.

제100집 발행 동안 〈불교학보〉는 불교교학, 불교사학, 응용불교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불교사상 · 문학 · 역사 · 철학 · 문화 · 예술 · 응용 등 불교학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 논문을 꾸준히 게재해 왔다. 불교학계 최초 학술지를 넘어 불교학 전문연구의 기초가 되었다는 평가다.

〈불교학보〉는 앞서 1958년 창간된 〈동국사상〉이 1998년 종간되며 현재 발생 불교학술지 중 가장 오래된 학술지 위상을 지니고 있다.

〈불교학보〉는 2005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후보로, 2009년에는 등재학술지(KCI)로 선정된 이래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대표 학술지로의 역할에 〈불교학보〉 편집체제를 참조한 후속 학술지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최근 심사에서는 최초의 불교학 종합 전문학술지로서의 역사와 성격에 걸맞게 전 영역에서 매우 우수한 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불교학 전 분야를 총괄하는 다양한 연구논문을 게재하면서도 논문의 질적 우수성과 여러 외국학자들의 논문을 유치하고자 했던 노력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불교문화연구원장 정덕 스님은 “국내 최초의 불교 전문학술지이자, 한국 불교학 연구에 초석을 다진 불교학보의 오랜 전통이 제100집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불교학보 전통을 이어가 불교학술지의 선구적 위상을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불교학보〉는 2023년부터 발행되는 제101집부터는 창간호부터 제100집까지 유지되어 온 기존의 판형이 변화한다.

〈불교학보〉 발행 논문 전편은 동국대 불교학술원 홈페이지(https://abchome.dongguk.edu)에서 열람 가능하다.

노덕현 기자

불교 · 한의학 융합 연구로 발전 방향 모색

동대 불교문화연구원, 12월 4일
제1회 불교와 한의학 학술대회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정덕)은 12월 4일 서울 동국대 법학관 세미나실에서 ‘제1회 불교와 한의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학술대회는 불교학의 외연을 확대, 인접 학문인 한의학과 연계를 시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장재진 동명대 교수는 ‘불교와 한의학의 연구 방향에 관한 제언-『불교의학상설』『황제내경』과 도불습합(道佛習合)을 중심으로’에서 불교 범주에서 한의학 요소를 모색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장재진 교수는 “자연계의 변화가 인체의 생리 · 병리의 변화와 동일한 선에서 진행된다는 ‘천인합일(天人合一)’ 사상은 사람의 마음이 외부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불교 맥락과 유사하다”면서 “불교라는 범주에 한의학을 접목해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영 경희대 HK연구교수와 윤은경 연구원은 손사막의 ‘대의정성(大醫精誠)’을 중심으로 불교와 한의학의 의료윤리를 발제하며 “손사막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자신의 생명을 아끼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살아있는 동물을 약재로 사용하는 것은 금하라고 했는데, 이는 불교에서 살아있는 것은 죽이지 말라는 생명존중 사상인 불살생과 일치한다”면서 “손사막의 ‘대의정성’에서 보여준 생명존중에 대한 의료윤리는 불교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히포크라테스 선언에 버금가는 서원이며 오늘날 생명윤리와 비교해봤을 때 전혀 시대에 뒤지지 않고 있다. 그 바탕은 바로 불교”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의학철학으로서 아유르베다와 불교의학(이거룡/ 선문대 교수) △불교와 한의학에서 설명하는 육체적 질환과 정신적 질환 간 상관관계 공통적 요소-‘심장’의 사례를 중심으로(강형철/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가 발표됐다.

임은호 기자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

12월 17일 한마음선원 본원

한마음선원 전법 방안 등 다양한 주제의 학술 논문이 발표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은 12월 17일 오후 1시30분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3층에서 제13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발표회에서는 해인사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이 ‘〈범망경〉 주석서에 나타난 계체론 연구’를, 백도수 능인대학원대학 교수(한국불교학회장)가 ‘한마음선원의 전법토대와 전법실천 방안 고찰’을 각각 주제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이자랑(동국대), 고승학(동국대), 서재영(성철사상연구원), 김봉래(BBS불교방송)가 참여한다.

발표회는 유튜브로 생중계 된다.

대행선연구원은 “연구원은 대행선사의 사상과 불교 사상을 집중 조명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학술대회와 더불어 연간 네 차례 계절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선학과 불교학 관련 전공자들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계절발표회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代' 이은 연등 제작
승강장치 시공 전문기업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010-9446-1862
031)768-7270, 7271
찬덕불교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이어받아
공장 직영 생산으로 철저한 품질관리를
보장합니다

